

지역별 건설산업의 위상 및 역할 분석

2011. 11

윤영선 · 이홍일 · 박철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 지역별 건설업 위상 분석	5
■ 지역별 건설업의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 분석	11
■ 지역별 건설 투자의 지역 경제 성장 기여율 분석	18
■ 결론 및 시사점	22

요 약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적으로 연고 산업적 특성이 강한 건설산업을 지역 경제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중시해 왔으나, 최근 들어 건설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음.
- ▶ 그러나,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동 비중이 2009년 기준으로 14%를 상회함으로써 지역 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의 지역은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20%를 상회하며, 지역 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음.
- ▶ 지역내 건설업 생산액과 타 업종 생산액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2009년 기준으로 대전,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건설업의 생산액 순위가 5위안에 들며 건설산업 위상이 아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2005년)를 기초로 건설업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여전히 지역 경제에 높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의 전체 생산유발효과 중 지역 내에 미치는 효과의 비중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60% 내외로서 개방성이 높은 지역 경제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높은 편임.
 - 취업유발효과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체로 17명/10억원 수준으로서 제조업보다 높음.
 - 총 6,900억원의 건설 투자가 예상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면, 호남지역에 8,100억원의 생산 유발 및 7,700명의 취업유발효과 발생 전망
 - 또한, 평창올림픽 관련 7조 2,000여억원의 건설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강원 지역에 총 9조원의 생산 유발 및 5만 9,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 지역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도 높은 상황에서 최근 지역내 건설 투자가 부진함에 따라 건설 투자의 지역 경제 성장 기여율이 급격히 감소해 지역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
 - 2000~04년 동안은 전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지역내 총생산액(GRDP) 성장에 대한 건설 투자 기여율이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2005~09년 동안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제주 등 7개 지역에서 마이너스(-) 기여율 기록
- ▶ 향후 지역 경제의 침체 방지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적절한 수준의 건설 투자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전통적으로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연고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특정 지역 집중도가 낮은 대표적인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¹⁾
 - 최근 대형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외건설의 비중이 증대하면서 건설산업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소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지역적 기반을 중시하는 지역 밀착형의 영업 및 생산 활동을 하고 있음.

- 건설산업의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 성장과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
 - 둘째, 단기적으로는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의 침체를 방지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등 경기 활성화와 안정적 성장에 기여
 - 셋째, 특정 지역 건설산업이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경우 해당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에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수출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함.

- 이 가운데 두 번째 측면, 즉 건설산업의 경기 침체 방지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한 역할은 경제 기반이 취약한 지역 경제에서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음.
 - 전통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건설 수요의 안정적인 창출과 유지를 지역 경제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중시해 왔음.
 - 그러나 최근 국가 및 지역 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점진적 하락 추세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남.

-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 즉 지역 경제의 경기는 지표상 비교적 양호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취약한 경제

1) 특정 산업의 지역별 분포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집중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특정 산업이 전(全) 산업의 지역 분포와 다르게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0”에 가까울수록 지역별 분포가 전 산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건설산업은 0.095로 집중계수가 가장 낮은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한국은행, 2005년 지역산업연관분석, 2008.).

구조로 인하여 장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²⁾

- 이러한 지역 경제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안정성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건설산업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 관심을 갖고 지역 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의 실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시·도 단위 지역별로 건설산업의 위상 변화 추세를 분석하고, 지역 단위에서의 건설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정도를 분석하고자 함.
 - 또한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건설 투자의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율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지역별 건설업 위상 분석

- 지역별로 건설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지역내 건설업 생산액과 타 업종 생산액을 비교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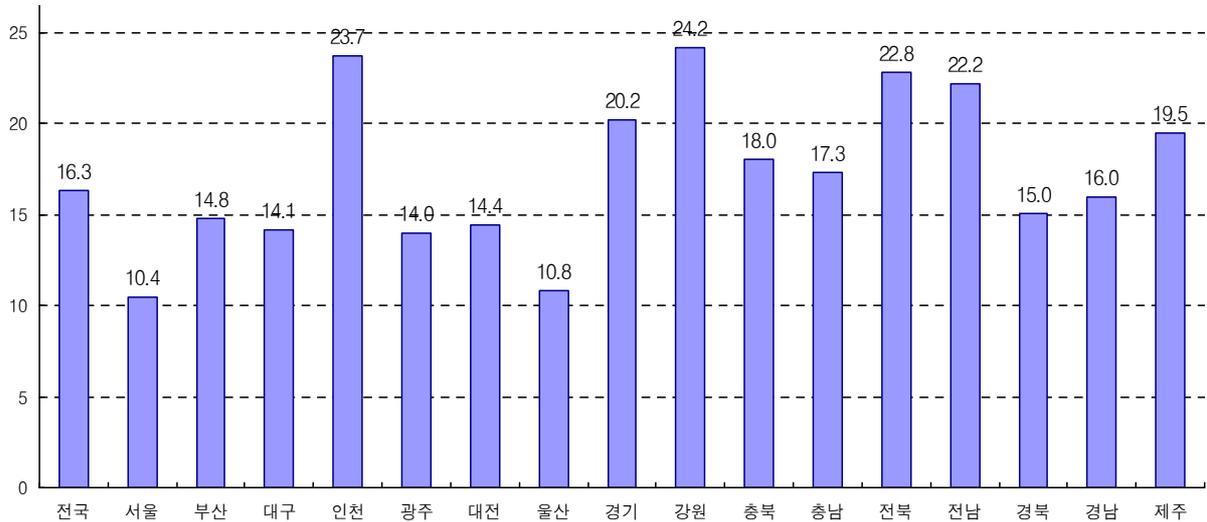
□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 분석

- 1990년대 20%를 상회하기도 했던 국내 총생산액(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은 외환 위기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했으나, 2010년 현재도 약 15%를 기록하며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
- 지역별로도 지역내 총생산액(GRDP)에서 차지하는 해당 지역 건설 투자 비중이 서울과 울산은 제외하면 모두 2009년 기준으로 14%를 상회하며,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

2) 한국은행의 2011년 8월 지방 경제 현황 보고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방 경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한국은행, 최근의 지방경제동향, 2011.8.).

<그림 1>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2009년 기준)

(단위 : %)



자료 : 지역소득통계, 통계청 kosis.

- 특히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은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20%를 상회하며, 지역 경제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은 지역 들임.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은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전국 평균과 유사한 지역임.
- 서울과 울산은 지역내 총생산액(GRDP)에서 차지하는 건설 투자 비중이 10% 대에 머물며 지역 경제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위상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지역임.

<표 1>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을 기초로 한 지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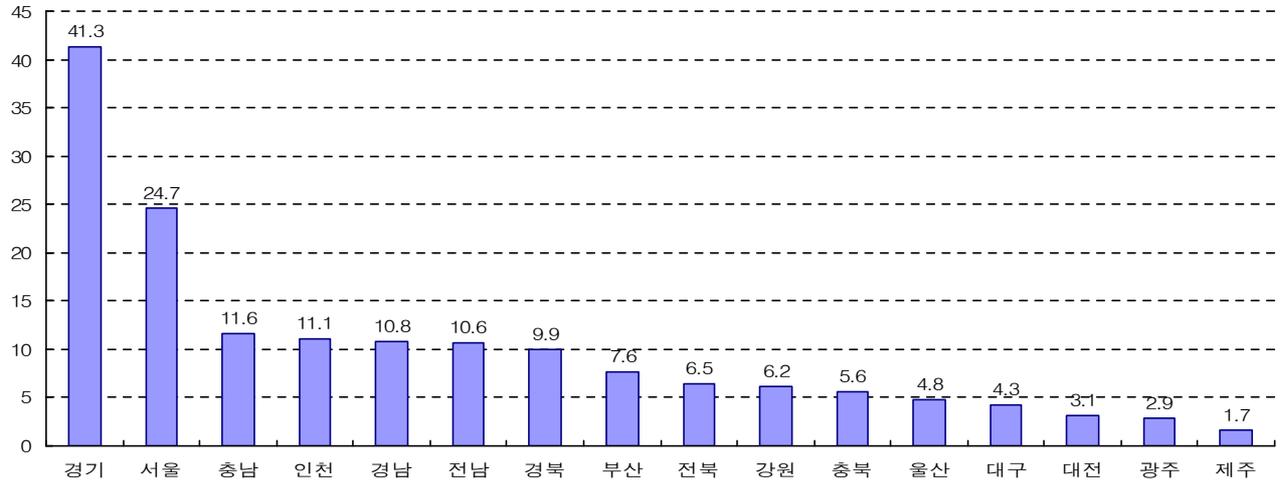
구분	해당 지역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은 지역(18% 초과)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제주
전국 평균과 유사한 지역(14~18%)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14% 미만)	서울, 울산

주 : 2009년 자료를 기초로 한 구분임.

- 2009년도 기준 건설 투자의 절대액은 경기도가 41.3조원으로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 서울, 충남, 인천, 경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경기, 서울 및 인천 등 수도권의 건설 투자액은 77.1조원으로 전국 투자액의 47.4% 를 차지함.

<그림 2> 지역별 2009년 건설 투자 규모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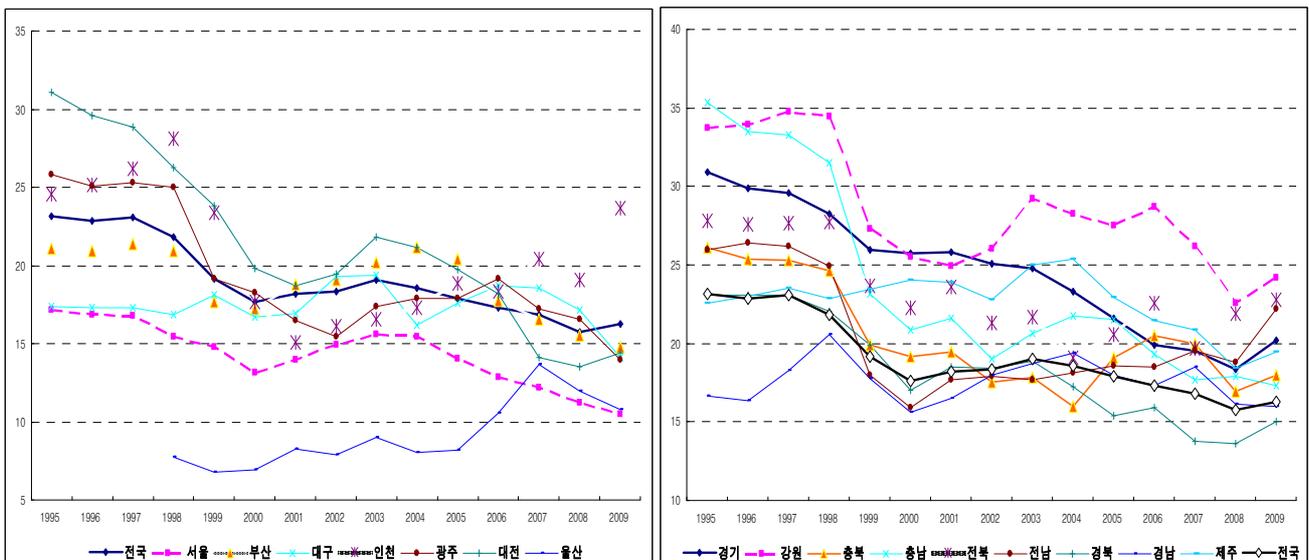


자료 : 지역소득통계, 통계청 kosis.

□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 추이 분석

- 1995~2009년의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역의 건설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거의 모든 지역에서 IMF 금융위기를 맞은 1998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건설 투자 비중이 20% 대 이상에서 그 이하로 크게 떨어졌음.

<그림 3>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 추이



자료 : 지역소득통계, 통계청 kosis.

- 다만, 울산, 인천 등은 타 지역과 다른 패턴을 보임.
 - 울산은 2000~05년 동안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2006~07년 동안 동 비중이 급상승했고,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임.
 - 인천은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199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2년 이후 재상승하는 패턴을 보임.
- 1995~2009년 동안 지역별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1995~97년 3년 동안의 비중 평균과 최근 3년 동안(2007~09년) 동안 비중 평균의 격차를 계산함³⁾.

<표 2>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 변화를 기초로 한 지역 구분

구 분		1995~97평균(%)	2007~09평균(%)	차이(%p)
전국		23.0	16.3	-6.7
전국 평균 수준 이상 감소 (-16.0~-8.0%)	충남	34.0	17.6	-16.4
	대전	29.8	14.0	-15.8
	경기	30.1	19.4	-10.8
	강원	34.2	24.3	-9.9
	광주	25.4	15.9	-9.5
	경북	23.1	14.1	-8.9
전국 평균 수준 감소 (-7.0~-4.0%)	충북	25.6	18.3	-7.3
	전북	27.7	21.4	-6.2
	전남	26.2	20.2	-6
	서울	16.9	11.3	-5.6
	부산	21.1	15.6	-5.5
전국 평균 수준보다 감소폭 양호 (-3.0~+4.0%)	인천	25.3	21.0	-4.3
	제주	23.0	19.6	-3.4
	대구	17.3	16.6	-0.7
	경남	17.1	16.9	-0.2
	울산	7.7*	12.1	4.4

* : 1998년 울산의 건설 투자 비중임.

3) 1995~97년의 3년과 최근 3년의 건설 투자 비중 평균을 비교한 이유는 건설 투자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 급격히 감소하면서 구조적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기 이전과 최근의 건설 투자 비중을 비교, 분석하기 위함임.

- 그 결과, 전국적으로 대략 6.7%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감소폭이 큰 지역은 충남과 대전임.
 - 가장 감소폭이 컸던 지역은 충남으로 16.4%p가 감소하였으며, 대전, 경기, 강원, 광주, 경북 지역 등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감소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남.
 - 충북, 전북, 전남, 서울, 부산 등은 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 제주, 대구, 경남, 울산 등은 전국 평균보다 감소폭이 더 낮은 지역임. 특히, 울산은 4.4%p가 증가해 건설 투자 비중이 유일하게 증가한 지역임.

□ 지역내 건설업 생산액과 타 업종 생산액의 비교 분석

- 지역내 건설업의 위상을 타 업종과 비교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7개 업종의 지역내 생산액을 건설업 생산액과 비교한 결과,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건설업종의 생산액 순위는 17개 업종 중 4위를 차지해 상위권에 위치함.
 - 전국적으로 1985년에 6위에 머물렀던 건설업종의 생산액 순위는 1990년과 1995년에는 2위로 상승했고, 외환위기 영향으로 2000년에 4위를 기록한 이후 2005년 3위, 2009년 현재 4위를 기록함⁴⁾.
- 지역별로 건설업 생산액을 타 업종 생산액과 비교한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건설업의 생산액 순위가 2~4위를 기록해 아직까지 다수 지역에서 건설업의 위상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음.
 - 2009년 기준으로 부산(6위), 대전(6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건설업의 생산액 순위가 5위안에 들었음.

4) 전북, 전남 그리고 제주도와 같은 지역의 경우 최근 2000년대까지 농림어업이 최고의 산업으로 나타남. 이는 17개 업종으로 분리된 기준에서 제조업이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생활관련형 등으로 세분화되었기 때문임. 제조업이 세분화되어서 비중이 높은 산업을 판단하는 데 다소 통념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표 3> 지역내 건설업 생산액과 타 업종 생산액의 시기별 비교 분석

구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전국	건설업순위	6	2	2	4	3(공동)	4
	1위 업종	농림어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서울	건설업순위	4	4	4	4	4	5
	1위 업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부산	건설업순위	7	4	3	5	5	6
	1위 업종	생활 관련형 제조업	생활 관련형 제조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대구	건설업순위	9	4	4	4	6	5
	1위 업종	기초 소재형 제조업	기초 소재형 제조업	기초 소재형 제조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인천	건설업순위	4	3	3	4	5	4
	1위 업종	기초 소재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광주	건설업순위	-	1	1	3	4	5
	1위 업종	-	건설업	건설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대전	건설업순위	-	1	2	2	2	6
	1위 업종	-	건설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울산	건설업순위	-	-	-	5	3	4
	1위 업종	-	-	-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기초 소재형 제조업
경기	건설업순위	4	3	3	4	3	3
	1위 업종	생활 관련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강원	건설업순위	3	2	1	2	2	2
	1위 업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건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충북	건설업순위	5	2	2	3	3	4
	1위 업종	농림어업	기초 소재형 제조업	기초 소재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충남	건설업순위	7	4	1	4	3	3
	1위 업종	농림어업	농림어업	건설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전북	건설업순위	6	3	2	2	3	4
	1위업종	농림어업	농림어업	농림어업	농림어업	농림어업	기초소재형 제조업
전남	건설업순위	5	3	3	3	3	2
	1위 업종	농림어업	농림어업	농림어업	기초 소재형 제조업	기초 소재형 제조업	기초 소재형 제조업
경북	건설업순위	7	4	4	4	3	3
	1위 업종	기초 소재형 제조업	기초 소재형 제조업	기초 소재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경남	건설업순위	9	3(공동)	3	4	2	3
	1위 업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제주	건설업순위	5	2	2	2	2	2
	1위 업종	농림어업	농림어업	농림어업	농림어업	농림어업	농림어업

주 : 지역소득계정의 17 업종 분류 기준임.

17개 업종은 다음과 같음: 농림어업, 광업, 기초 소재형 제조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생활 관련형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서비스업.

자료 : 지역소득통계, 통계청 kosis.

III. 지역별 건설업의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 분석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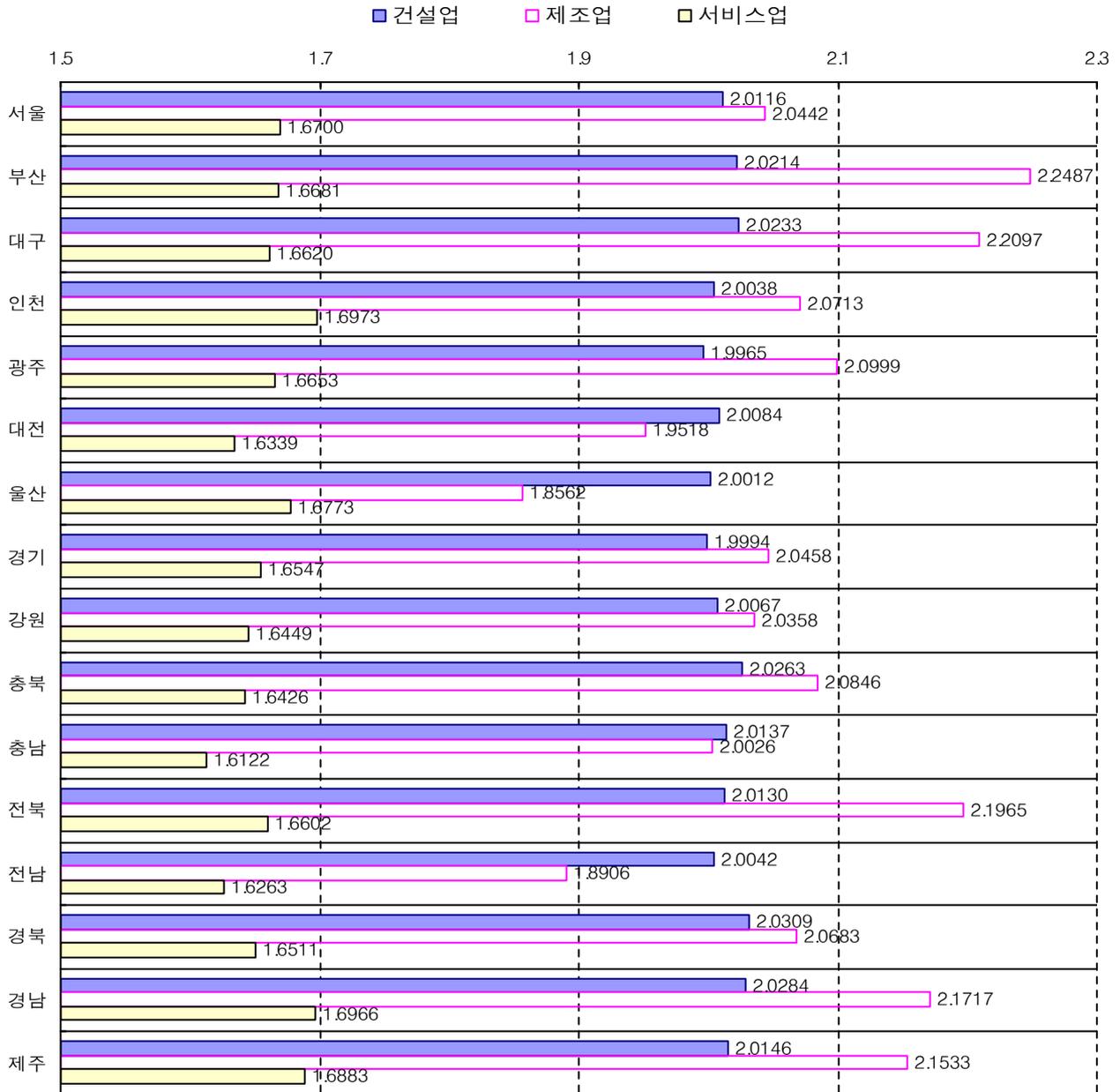
□ 지역별 건설업의 생산유발효과

- 지역별 주요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거의 모든 시·도에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생산구조의 특성으로 인하여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시·도별로 세부 업종 구성의 차이로 인해서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서비스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6 내외인 반면, 제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2에서 1.8 까지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비하여 건설업의 경우 토목과 건축의 비중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생산유발효과는 거의 모든 시·도에서 2.0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남.

- 이러한 산업 구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대전, 울산, 충남, 전남 등 네 지역은 건설업의 생산유발효과가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들 지역은 건설업의 생산유발효과는 타 지역과 비슷하나 지역 내 제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낮음으로 인하여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더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보이고 있음.
 - 울산과 전남의 경우 제조업이 주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발달하여 생산유발효과가 건설업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5) 본 건설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은 2005년도 기준 분석 결과임(자료 : 한국은행,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2008). 한편, 본 분석은 지역별 건설산업의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를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건설산업의 기여도 내지 영향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산업간 투자 효율성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함.

<그림 4> 지역별 주요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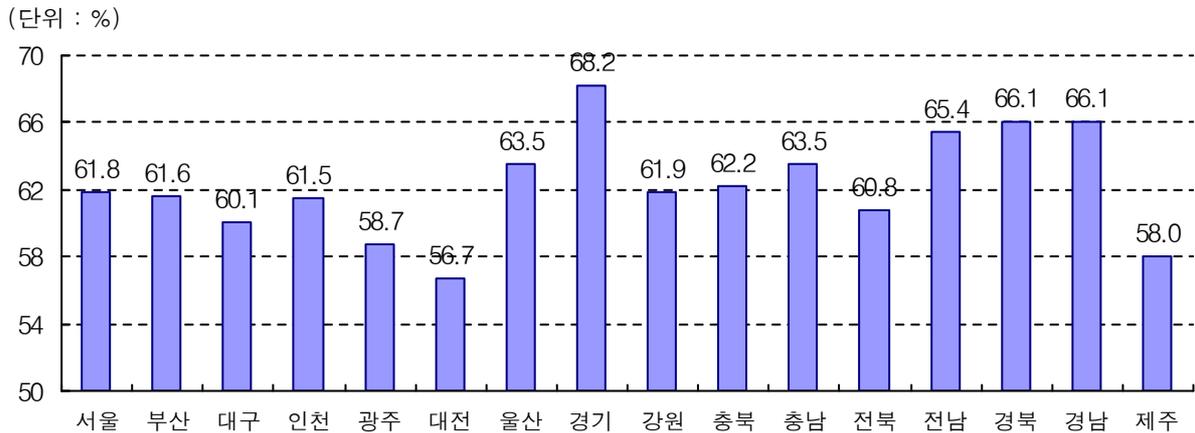


자료 :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

- 한편, 건설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지역내 효과와 지역외 효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역 내 효과가 60% 내외로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는 지역내 효과가 68.2%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이 동시에 발전하여 건설업 생산에 따른 파급이 지역 내에서 크게 발생하기 때문임.

- 이에 비하여 50% 대를 보이고 있는 광주와 대전, 제주 등은 지역내 생산유발효과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5> 지역별 건설업의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비중



자료 :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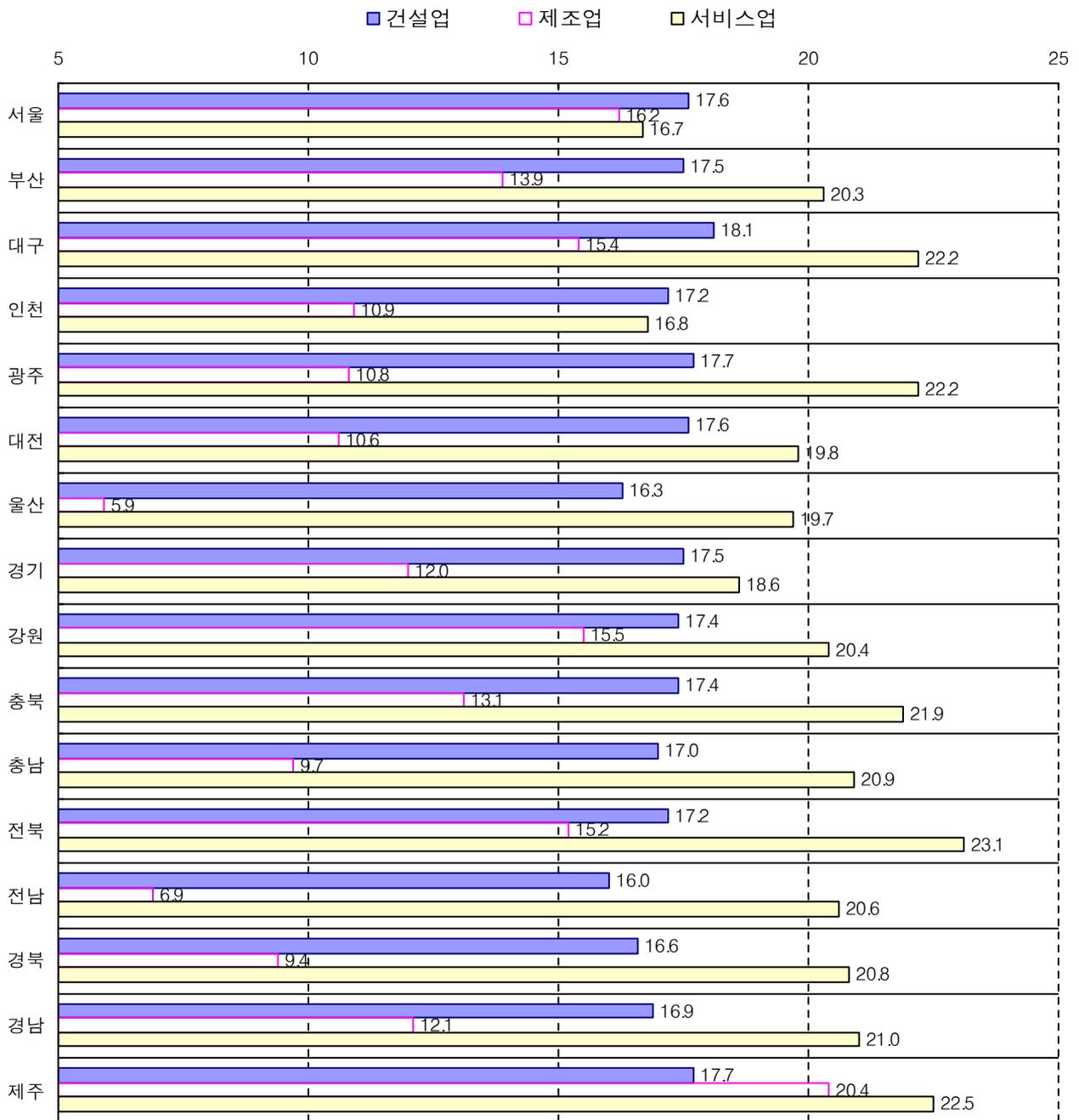
□ 지역별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

- 지역별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는 거의 모든 시·도에서 대체로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순으로 나타남.
 - 이 역시 산업별 생산구조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건설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여 취업유발효과가 대체로 서비스업보다는 낮지만 제조업보다는 높게 나타남.⁶⁾
 -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대체로 17명/10억원 내외로 시·도별로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제조업은 최저 5.9명/10억원에서 최고 20.4명/10억원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서비스업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20명/10억원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나나 생산자형 서비스업 위주로 발달한 서울과 인천은 16명/10억원대로 낮게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이들 지역은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가 서비스업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제주는 건설업 취업유발효과가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보다도 더 낮게 나타

6)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업은 기계장비 투입과 표준화 정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인력 투입이 높은 편이며 건설산업은 생산활동 특성상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중간적 위치에 있음.

나는 특징을 보임.

<그림 6> 지역별 주요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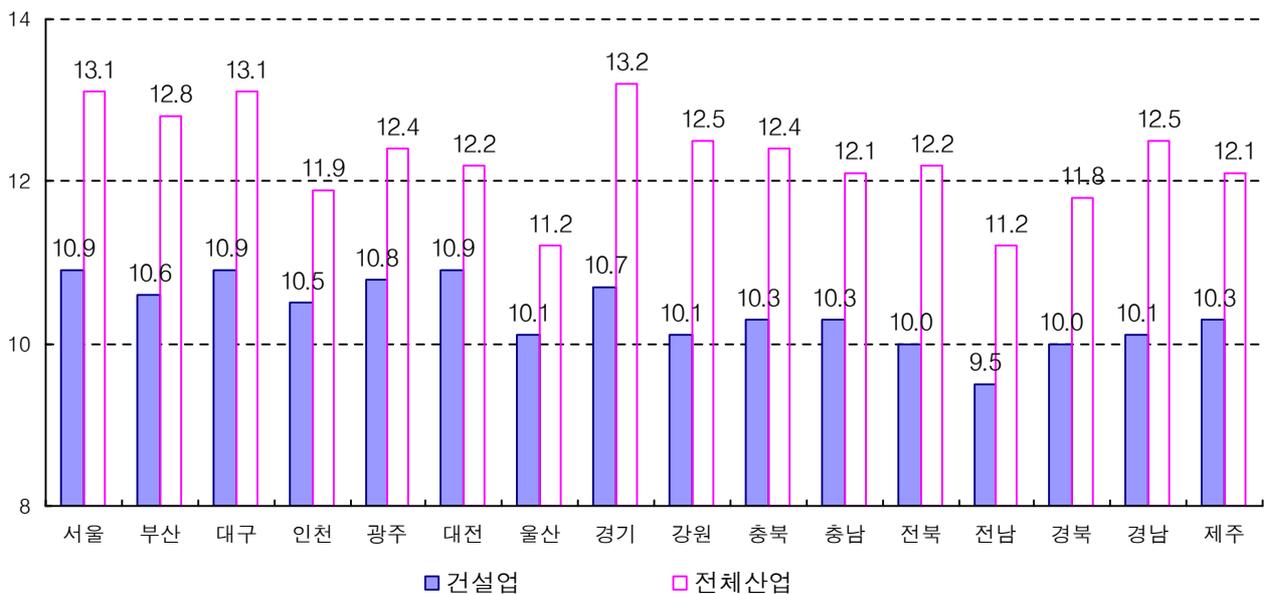


자료 :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

- 시·도별로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대구가 18.1명/10억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전남은 16.0/10억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취업유발효과가 16명/10억원 대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시·도는 전남을 비롯하여 경북, 울산, 경남 등임.
- 건설업 취업유발효과 역시 자기 지역내에 미치는 효과와 타 지역에 미치는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건설업 취업유발효과 중 지역내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지역은 경기도로 13.2명/10억원임.
 - 이 밖에 서울과 대구, 부산 등 주로 광역시의 지역내 취업유발효과가 13명/10억원 내외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비하여 인천, 울산, 전남, 경북 등은 지역 내 취업유발효과가 11명/10억원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7> 지역별 건설업 지역내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자료 :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

- 한편, 건설업의 지역내 취업유발효과 중에서 특히 지역내 건설부문에 미치는 취업유발효과 살펴보면,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와 경기도가 10억원 당 10.5명 내외로 높게 나타남.

- 이에 비하여 나머지 도급 지역은 지역내 건설부문 취업유발효과가 10명/10억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전남은 9.5명/10억원으로 가장 낮음.

□ 사례 분석 1 :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요 기관의 건축 관련 투자비는 총 6,99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광주·전남 혁신도시에는 한전 KPS, 한전 KDN, 한국농어촌 공사 등 총 13개 기관이 본사 이전을 위한 건축 관련 투자를 2014년경까지 집행할 것으로 예상됨.

<표 4> 광주·전남 혁신도시 입주 예정 기관과 예상 건축비

기관명	건축비(억원)
한전KPS	1,164
한전KDN	971
우정사업정보센터	254
전력거래소	743
한국농어촌공사	9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74
농업연수원	255
농수산물유통공사	45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19
전파연구소	309
한국인터넷진흥원	498
한국콘텐츠진흥원	334
사학연금공단	305
계	6,991

-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호남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면, 먼저 생산유발효과는 호남권 내 8,131억원, 호남권 외 지역 5,982억원이며 전국적으로는 1조 4,1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호남권 내 생산유발효과 중에서 건설업 생산유발액은 6,502억원이고, 여타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액은 1,629억원임.
- 다음으로 취업유발효과를 살펴보면,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의 취업유발인원은 전

국적으로 1만 1,395명에 이르며, 이 중 호남권 내에 취업유발인원은 7,760명이고, 호남권 외 지역 취업유발인원은 3,635명임.

- 한편, 호남권 내에서 건설업 취업유발인원은 6,572명이며, 기타 산업 취업유발인원은 1,188명임.

<표 5> 지역 경제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구분		생산 유발	취업 유발
자기 지역 (호남권)	건설산업	6,502	6,572
	기타 산업	1,629	1,188
	계	8,131	7,760
타 지역		5,982	3,635
전 지역		14,113	11,395

□ 사례 분석 2 : 평창올림픽 관련 건설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 2018년 개최 예정인 평창 올림픽 관련 강원 지역에 투자될 건설비용은 총 7조 2,500여억원으로 추정됨.
- 도로 및 철도 시설 투자비가 4조 7,400억원으로 추정되고, 올림픽 선수촌 건설비가 8,2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표 6> 평창올림픽 관련 예상 건설 투자액

부문	투자액(억원)
도로 및 철도	4조 7,400
시설	7,700
경기장	5,400
올림픽 선수촌	8,200
기자촌 등	3,800
계	7조 2,500

-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평창올림픽 건설 관련 투자비의 강원도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면, 먼저 생산유발효과는 강원도 내 9조 100억원, 강원도를 제외한 여타 지역 5조 5,400억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전국적으로는 14조 5,5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강원도 내 생산유발효과 중에서 건설업 생산유발액은 7조 260억원이고, 여타 산업

에 대한 생산유발액은 1조 9,840억원임.

- 다음으로 취업유발효과를 살펴보면, 평창올림픽 건설 투자에 따른 취업유발인원은 전국적으로 9만 3,900명에 이르고, 이 중 강원도 내 취업유발인원은 5만 9,300명이며, 강원도 외 지역 취업유발인원은 3만 4,000명임.
- 한편, 강원도 내 건설업 취업유발인원은 4만 7,900명이며, 기타산업 취업유발인원은 1만 1,400명임.

<표 7> 지역 경제 파급효과

		생산 유발(억원)	취업 유발(명)
자기 지역 (강원)	건설산업	7조 260	47,900
	기타 산업	1조 9,840	11,400
	계	9조 100	59,300
타 지역		5조 5,400	34,000
전 지역		14조 5,500	93,900

IV. 지역별 건설 투자의 지역 경제 성장 기여율 분석

- 건설산업이 지역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지역내 총생산액(GRDP) 성장에 대한 건설 투자 기여율을 분석함.
- 분석 결과, 2005~09년 동안 지역내 총생산액(GRDP) 성장에 대한 건설 투자 기여율이 플러스(+) 40%, 또는 마이너스(-) 40%가 넘는 지역이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전북, 전남 등 6개 지역이나 존재해 해당 지역내 경제 성장에 건설 투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음.
- 이들 6개 지역의 2009년 기준 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은 약 10~25% 정도였는데, 2005~09년 동안 지역내 총생산액(GRDP) 성장에 대한 건설 투자 기여율의 절대값이 건설 투자 비중의 약 2~4배에 이룸.
 - 6개 지역 중 인천, 전북, 전남은 해당 지역 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2009년 기준)이 각각 23.7%, 22.8%, 22.2%를 차지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건설 투자 비중

- 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며, 건설 투자의 GRDP 성장 기여율의 절대값이 건설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 부산, 대전은 2009년 기준 해당 지역 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각각 14.8%, 14.4%를 차지하고 있고, 건설 투자의 GRDP 성장 기여율의 절대값은 건설 투자 비중의 약 3배 정도로 나타남.
 - 울산은 2009년 기준 해당 지역 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10.8%를 차지했고, 건설 투자의 GRDP 성장 기여율 절대값은 건설 투자 비중의 4배 정도로 나타남.
- 일부 지역에서 건설 투자의 지역내 총생산액(GRDP) 성장 기여율 절대값이 큰 것은 국민계정의 지출부문에서 소비보다 건설 투자의 변화 폭이 그만큼 더 컸다는 의미임7).
- 전국적으로는 2010년 기준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약 15%인데, 2000~04년 건설 투자의 GDP 성장 기여율은 16.7%, 2005~09년 동안은 4.6%로 나타나 건설 투자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 않음.

<표 8> 지역별 건설 투자의 지역내 총생산액(GRDP) 성장 기여율 추이

(단위 : %)

구분	2000~09년	2000~04년	2005~09년
전국	11.2	16.7	4.6
서울	0.0	18.5	-22.4
부산	7.3	34.6	-43.9
대구	-1.1	6.5	-22.3
인천	24.3	-4.4	55.4
광주	2.9	13.2	-10.2
대전	-6.2	12.5	-46.1
울산	21.7	13.0	41.5
경기	14.4	17.9	10.8
강원	16.1	32.4	-10.0
충북	14.4	3.5	29.3
충남	12.9	19.0	9.2
전북	20.3	-4.0	46.8
전남	34.2	18.8	51.1
경북	7.0	11.2	-3.9
경남	12.7	25.0	-2.7
제주	11.2	30.8	-37.8

주 : 지역별 건설 투자의 GRDP 성장 기여율 = (∑매년 지역별 건설투자 증감액/∑매년 지역별 GRDP 증감액)*100.

7) 건설 투자는 건설 생산과 거의 유사한 변동 추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역내 총생산액(GRDP)을 구성하고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생산보다 건설 생산의 변화 폭 역시 상대적으로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00~04년 동안은 인천과 전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지역내 총생산액 (GRDP) 성장에 대한 건설 투자 기여율이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2005~09년 동안은 9개 지역에서 마이너스(-) 기여율을 기록해 기여율 하락 정도가 심각함.
 - 2005~09년 동안 마이너스(-) 기여율을 기록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경북, 경남, 제주 등임.
 - 강원도의 경우 지역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부진으로 지역내 총생산액(GRDP) 성장에 마이너스(-) 기여율을 기록함.

- 2000~04년 동안 지역내 총생산액(GRDP) 성장에 대한 건설 투자 기여율보다 2005~09년 동안 동 기여율이 상승한 지역은 전남, 전북, 인천, 울산, 충북 등에 불과했음.
 - 5개 지역 중 충북을 제외하고는 2005~09년 동안 건설 투자의 지역내 총생산액 (GRDP) 성장 기여율이 약 40%를 상회함.
 - 2000~04년 대비 2005~09년에 지역내 총생산액(GRDP) 성장에 대한 건설 투자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인천과 전북 지역임.
 - 인천의 경우 송도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아시안게임 준비 등을 통해, 전북은 새만금사업을 통해 건설 투자가 타 지역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최근 들어 건설 투자의 지역내 총생산액(GRDP) 성장 기여율이 하락한 원인은 지역별로 건설 투자의 연관산업 생산유발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 않은 가운데, 지역별 건설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임.
 - 지역별 건설 투자의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부산의 경우 2005년 이후 5년 연속 감소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다수 지역의 건설 투자가 2005년 이후 2~4개년 동안 전년 대비 감소함.
 - 2005~09년 동안 건설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가 한 해뿐인 지역은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전남뿐임.

<표 9> 지역별 건설 투자의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	-0.3	7.2	9.2	7.6	1.0	0.4	1.4	2.7	-3.7	4.1
서울	-2.7	9.0	14.8	5.9	-0.3	-7.5	-4.5	-1.1	-5.1	-6.1
부산	2.7	16.5	8.4	10.3	4.9	-0.5	-10.1	-2.4	-5.2	-6.5
대구	-0.1	1.5	19.2	2.7	-13.9	8.8	10.6	3.4	-6.3	-21.0
인천	-19.1	-11.6	17.5	5.1	7.3	12.6	3.6	19.5	-5.0	23.8
광주	4.8	-7.2	2.2	13.4	4.9	5.8	14.1	-6.8	-4.8	-15.4
대전	-9.7	-2.4	11.9	20.1	-1.9	-4.0	-4.7	-20.1	-2.9	6.7
울산	8.3	19.4	8.9	14.7	-7.9	5.0	31.4	34.4	-11.5	-11.1
경기	11.1	6.5	9.0	3.0	1.1	2.3	-0.9	4.3	-2.0	11.4
강원	-0.2	-0.6	11.0	20.0	-3.4	-1.7	9.5	-4.5	-13.2	7.4
충북	4.3	2.9	-3.7	5.5	-3.3	19.5	11.3	3.2	-13.3	10.6
충남	-3.5	6.5	-5.5	23.2	18.0	8.2	1.3	-1.6	8.3	5.5
전북	-1.1	8.5	-6.4	6.8	-10.0	9.6	14.8	-8.1	12.9	4.9
전남	-7.8	14.2	9.8	-1.1	3.7	4.1	1.2	12.8	-1.9	19.6
경북	-5.9	15.2	7.0	9.6	-2.2	-6.9	4.7	-6.2	0.1	6.3
경남	-6.8	14.1	14.3	9.6	5.8	-5.3	1.6	12.4	-8.6	-1.4
제주	12.2	6.8	2.5	12.5	5.2	-9.2	-4.3	3.2	-14.7	10.6

자료 : 지역소득통계, 통계청(2005년 불변금액 기준).

- 전국적으로 건설 투자가 2010년에 전년비 1.4% 감소했고, 2011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비 9.0% 감소하며 부진했기 때문에 지역내 총생산액(GRDP)에 대한 건설 투자의 성장 기여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10년 이후에도 매우 부진했을 것으로 추정됨.
- 건설 투자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종합건설업체의 국내 건설 수주가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⁸⁾,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8~09년의 2년 동안 대부분 지역의 수주가 감소해 부진했음.
 - 2008~09년의 2년 동안 연평균 수주 증가율이 증가한 지역은 전북, 전남, 인천뿐임.
 - 공종별로 살펴보면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 수주가 2008~09년 동안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8) 종합건설업체의 국내 건설 수주가 2008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한 반면, 건설 투자는 1년 이상 시차를 두고 2010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공공부문의 2009년 SOC 예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대폭 증액되었고, 이 중 일부분이 2008년 이전에 기 발주된 공사의 기성 진척분에 투입되었기 때문임.

<표 10> 2008~09년 동안 지역별 종합건설업체의 연평균 수주 증가율

지역 구분	연평균 수주 증가율	공종별 연평균 수주 증가율		
		주택	비주택	토목
전 국	-11.9	-28.4	-5.0	-2.1
울 산	-32.8	-47.8	-37.4	-17.9
부 산	-28.7	-53.0	-3.8	-8.0
서 울	-25.5	-36.3	-10.1	-26.7
광 주	-21.4	-54.9	11.3	-7.6
충 남	-14.5	-25.3	-7.5	-14.1
경 기	-13.3	-29.2	-2.5	1.0
대 구	-11.8	-34.3	-3.8	7.3
충 북	-10.6	-68.7	-0.4	13.8
제 주	-9.2	26.7	-14.8	-15.0
경 남	-6.7	-24.8	-11.5	4.0
경 북	-6.3	-42.6	-1.5	3.9
강 원	-4.4	-24.1	-8.0	3.8
대 전	-1.3	-12.8	-8.6	29.7
전 북	0.3	-25.5	5.6	3.5
전 남	1.6	2.0	2.9	1.0
인 천	10.6	14.3	3.4	9.4

자료 : 건설업통계연보, 대한건설협회.

V. 결론 및 시사점

- 지역별로 건설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과 지역내 건설업 생산액과 타 업종 생산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건설업의 위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역내 총생산액(GRDP)에서 차지하는 해당 지역 건설 투자 비중이 2009년 기준으로 14%를 상회하며,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
 - 특히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의 지역은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20%를 상회하며, 지역 경제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음.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7개 업종의 지역내 생산액을 건설업 생산액과 비교한 결과, 2009년 기준으로 대전,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건설업의 생산액 순위가 5위 안에 들었음.

- 건설업이 지역내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2005년)를 기초로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여전히 지역 경제에 높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의 생산유발효과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조업보다는 낮고 서비스업보다는 높은 특징을 보이나,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제조업보다도 높음.
 - 건설업의 전체 생산유발효과 중 지역 내에 미치는 효과의 비중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60% 내외로서 개방성이 높은 지역 경제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높은 편임.
 -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체로 17명/10억원 수준으로서 제조업보다는 높으나 서비스업보다는 낮은 편임.
 - 한편,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 중 지역 내 취업유발인원은 대체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12명 내외이며, 나머지 5명은 지역 외 취업유발인원으로 나타남.
 - 총 6,900억원의 건설 투자가 예상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면, 호남지역에 8,100억원의 생산 유발 및 7,700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평창올림픽 관련 7조 2,000여억원의 건설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강원 지역에 총 9조원의 생산 유발 및 5만 9,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도 높은 상황에서 지역내 건설 투자가 부진함에 따라 건설 투자의 지역 경제 성장 기여율은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해 지역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
 - 2000~04년 동안은 전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지역내 총생산액(GRDP) 성장에 대한 건설 투자 기여율이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2005~09년 동안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제주 등 7개 지역에서 마이너스(-) 기여율을 기록함.
 - 지역별 건설 투자의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부산의 경우 2005년 이후 5년 연속 감소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다수 지역의 건설 투자가 2005년 이후 2~4개년 동안 전년 대비 감소함.
- 전국적으로 건설 투자가 2010년에 전년비 1.4% 감소했고, 2011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비 9.0% 감소하며 부진했기 때문에 지역내 총생산액(GRDP)에 대한 건설 투자의 성장 기여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0년 이후에도 매우 부진했을 것으로 추정됨.

- 향후 건설 투자의 부진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적정한 수준의 건설 투자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건설 투자는 주택 투자가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말 이후 토목 투자마저 감소세로 돌아서 감소세가 심화되는 양상임.
 - 따라서 주택 투자의 조기 정상화뿐 아니라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다수 지자체의 단체장 교체에 등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다수 지역개발사업, 토목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의 조속한 재검토 완료 및 새로운 추진이 필요함.
 - 예를 들어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비롯한 주요 지역개발사업의 지연 장비, 노후주택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의 조기 정상화, 발주가 예정된 주요 토목공사 조기 발주 등이 필요함.
 - 향후 공공부문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감안할 때 지역개발사업, 토목사업 등에 민간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임.

윤영선(연구위원 · ysyoon@cerik.re.kr)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박철한(연구원 · igata99@cerik.re.kr)